

종합·해설

민주 선거인단 모집 올해만 4번째...저조한 실적 알고보니

유권자들 피로감...등록 기피 불렀다

광주·전남 지지층 조직력도 예전만 못해

민주통합당이 올해 들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 대선 후보 경선 등에 잇따라 모바 일 투표를 도입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11 총선 당시 선거인단 모집 과열양상으로 인해 '동구 투신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인식 탓인지 이번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예전같지 않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인단 모집에 질려하며 의문하고 있고, 광주·전남 지역위원회의 '조직력'도 예전처럼 풀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 등록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은 "올 들어 4차례나 선거인단을 모집하다 보니 솔직히 피로감이 있다"며 "선거인단 모집이 잘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전남지역 모 지역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에 질려 모집에 잘 응해주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인단 모집이 예전같지 않아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부 캠프에서는 지지모임을 확대하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안철수 현상,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겹쳐 선거인단 모집이 부진한 것 같다"며 "이러 저래 흥행에 빨간불이 켜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5일 동자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8주기 추도식에 참석,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롤 모델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평소와 달리 선천 언급은 안해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4일 밤 MBC 100분토론에 출연, 정치인 롤모델로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라고 말할 것을 놓고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위원장은 "영국을 파산 직전에서 헤쳐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자기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늘 관용의 정신을 갖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철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로 선정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님과 엘리자베스 1

세 여왕 등을 꼽았다. 또 일부 언론과의 서면문답에서는 국내외 상관없이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아버지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언급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선 최근 자신의 5·16 발언이 가져온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5·16의 성격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종형기자 galee@

유력 대권주자들의 광주·전남지역 지지모임이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민주 대선주자 지지 모임 본격 '세 불리기' 나섰다

특히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역 순회 경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모임들이 지역별·직능별로 광범위한 조직화 및 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선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고 제18대 대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이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모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날 출범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지하는 'CS 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전남 시·군으로 조직을 확대

하고 있다. CS Korea재단은 지난 14일 황평을 수호리 '상상추모공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시·군 단위 조직 구성을 시작했다. 재단은 합평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재 6000여명 수준인 회원을 9월 말까지 3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

우고 세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모임이 활동했던 김두관 후보의 경우 최근 5개 지지모임이 연대해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광주·전남본부'라는 협의체를 결성했다.

문재인 후보 측도 애초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를 주축으로 활동해오다 최근 본격적인 지역조직을 꾸리고 지지세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박준영, 정세균 후보 측도 기존 조직을 풀 가동해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첫 경선 제주·울산지역 "승자는 나요"

민주 대권주자 승리 장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의 첫번째 순회경선지역인 제주와 울산 지역에 대한 선거인단 모집이 지난 14일 마감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나 대의원·당원 비중은 낮지만 초반 경선지로 전체 선거전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현재 제주와 울산 지역의 승

패는 조직대결로 판가름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올림픽 열기와 휴가철 때문에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주요 후보 캠프에서는 서로 제주·울산 지역에서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장담하는 분위기다. 박준영 후보 측은 광주·전남향우회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호남향우회 측은 제주지역 현역인 김두관 의원이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첫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향

우회가 친노(친노무현)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고 고향 후보보다는 대선 본선에 승산이 있는 후보에 전략적 투표를 할 것으로 보고 제주에선 1위, 울산에선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지율 정체를 고심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 측은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제주와 울산에서 모두 1위를 차지,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제주에선 지역 현역인 김재윤 의원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 측은 정치권 밖의 직능 조직과 전북향우회 등을 공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제주에는 최근 강기정·이원욱 의원 등이, 울산에는 최재성 의원이 상주하며 선거인단 모집에 열을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관위, '在外 박근혜 비방' 무혐의 처리

미국 내 야권 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난한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열린 야권의 대선 관련 행사에서 박 전 위원장을 비난한 김모씨의 발언과 관련, "선거법 위

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일 '대선투표참여운동본부' 달러스 지부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군사쿠데타의 원흉인 박정희의 치적을 깃발처럼 흔들며 추종하는 세력인 새누리당과 그의 딸 박근혜는 5·16을 구국 혁명이라고 했

다"면서 "그러다 비난이 쇄도하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꾀를 늘어놓는데 그런 그가 대통령 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선투표참여운동본부는 야권의 대선 운동을 지원하는 외곽단체로, 달러스 지부 발대식에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다카키 마사오의 딸, 대통령 자격 없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광복절인 15일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사실은 후보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 후보는 이날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옥매산 정사에서 열린 일제 쇄멸 제거 행사에 참석해 "광복절 67주년인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청산되

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 당시에 일본군 중위였던 다카키 마사오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그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동리 옥매산 정사에서 열린 일제 쇄멸 제거 행사에 참석해 '광복절 67주년인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청산되

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 당시에 일본군 중위였던 다카키 마사오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그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동리 옥매산 정사에서 열린 일제 쇄멸 제거 행사에 참석해 '광복절 67주년인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청산되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 530-3873~3876...

임대&매매 수익성최상. 1.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 등... 2.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3.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m당 145만...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 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O/P1층)

경매. 배우면서. 돈버실분. NPL / 특수물건만 취급. 20년 경매노하우 전수.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교육 / 임장비등 회비 550만원.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